

여자프로농구 판도, 박지수에게 물어봐

〈분당경영고〉

바스켓볼 브레이크

10월 17일 신인드래프트 '최대어'
우리銀, 이승아 임의탈퇴요청 충격
신한銀, 용병 모건 턱 부상 합류 무산

여자프로농구에선 단일시즌제도가 도입된 2007~2008시즌부터 '절대 1강'의 독주 체제가 이어져왔다. 2007~2008시즌부터 2011~2012시즌까지는 신한은행이 통합 6연패(단일시즌이었던 2007겨울리그 포함)의 역사를 썼고, 2012~2013시즌부터 2015~2016시즌까지는 우리은행이 통합 4연패를 달성하며 새로운 왕조를 구축했다. 지난 9시즌 동안 되풀이된 특정팀의 독주체제는 여자프로농구의 흥미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매번 받아왔다. 그러나 2016~2017시즌을 앞두고는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이승아

●주축 선수 이탈 속출

2016~2017시즌은 10월 29일 개막을 앞두고 벌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전력에 타격을 입으면서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통합 5연패에 도전하는 우리은행은 1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에 주전 가드 이승아(24)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아는 계속된 부상에 지쳐 휴식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아는 현재 인천의 집에서 쉬고 있다. 우리은행으로선 새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주전 포인트가드를 잃고 말았다. 가뜩이나 백업 자원이 부족한 터라 이승아의 임의탈퇴 공백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은 외국인선수의 부상 악재에 을고 있다. 신한은행은 7월 실시된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모건 턱(24)을 지명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코네티컷에서 뛰고 있는 턱은 지난달 28일 애틀랜타와의 경기 도중 왼쪽 무릎 반월판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1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신한은행 합류가 어려워졌다. 신한은행은 1라운드 지명 외국인 선수를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대체선수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풍의 눈' 될 박지수

여자프로농구에선 신인 육성이 최우선 과제다. 고교무대와 프로의 수준차가 너무 심하다보니 영입 이후 3~4년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전력에 보탬이 되는 선수로 성장한다. 올 시즌은 다르다.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18·분당경영고)가 10월 17일 열린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박지수는 6월 프랑스 낭트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대표팀의 주전 센터로 활약하며 세계 강호 빅맨들과 경쟁했다. "박지수를 영입하는 팀은 곧바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단숨에 리그 정상급 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박지수의 등장은 리그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다. 대표팀에서 박지수를 지도한 우리은행 위성우(45) 감독은 "당장 리그 경기에 투입해도 엄청난 위력을 펼칠 선수다"고 평가했다. 여자프로농구 6개 구단은 어느 때보다 1순위 지명권을 원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박지수는 10월 17일 실시될 여자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에 나선다. '한국여자농구의 미래'로 불리는 박지수의 등장은 새 시즌 여자프로농구 판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다.

스포츠동아DB



울산 윤정환 감독



제주 조성환 감독

울산의 방패냐, 제주의 창이냐

11일 K리그 클래식 29R서 '3위 전쟁'

울산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에서 승점 1점 차이로 3위를 다투고 있다. 울산(승점 41)은 29경기에서 11승 8무10패, 1경기를 덜 치른 제주(승점 40)는 28경기에서 12승4무12패를 기록 중이다.

올 시즌 두 팀의 승수 쌓기 전략은 정반대였다. 울산은 시즌 초반 극심한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며 어려운 행보를 거듭했다. 울산은 29경기에서 32골을 뽑았는데, 이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상위 6개 팀들 가운데 최소득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무너지지 않았던 원동력은 수비에 있다. 특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지키는 축구'로 실리를 추구했다. 38실점으로 선방했다.

제주는 정반대다. 28경기에서 46골을 넣었다. 클래식 12개 구단 중 최다실점이다. 실점이 많은데도 꾸준히 승점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불같은 공격력 덕분이었다. 잃은 것 이상으로 넣었다. 무려 50골을 터트렸다. 울산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면서도 18골을 더 넣었다.

그러나 최근 행보는 완전히 상반된다. 울산은 '골 넣는 팀'이 됐다. 8월 이후 외국인선수 코바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부쩍 향상됐다. 최근 4경기에선 7득점·7실점이다. 반면 제주는 최근 2경기에서 지키는 축구를 통해 성남FC와 인천 유나이티드를 잇달아 1-0으로 눌렀다.

이처럼 스타일이 뒤바뀐 두 팀은 A매치 휴식기를 마친 뒤인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3위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공격축구와 수비축구의 사이에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전북현대, 11일 인재발굴·육성 공개 테스트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지역 내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는 7세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5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일까지다. 신청자는 테스트 당일 축구화, 운동화, 운동복 등을 지참하면 된다.

'태권도의 날' 맞아 리우 메달리스트 팬사인회

'태권도의 날'을 맞아 4일 서울광장에서 2016태권도세계평화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오헤리, 김소희, 김태훈, 차동민 등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참가해 팬사인회를 했다. 또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태권도의 기상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웅장한 대북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남자농구 10개팀, 새 시즌 준비 돌입

kt·삼성 등 7개팀 일본에 훈련 캠프 차려
SK 미국 전훈…전자랜드·KCC는 중국행

남자프로농구 10개 팀이 본격적으로 2016~2017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말로 외국인선수들이 대부분 입국해 국내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몇몇 팀은 일찌감치 해외

로 전지훈련을 떠나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전력강화를 꾀하고 있다.

모비스는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로 떠났다. 일본대표팀 등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전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kt, 삼성, 동부, LG, KGC, 오리온도 일본에 훈련 캠프를 차렸다. kt는 오키나와, 삼성은 나고야, LG는 교토에 머문다. 동부와 KGC는 모

비스와 함께 도쿄 인근 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오리온은 도야마,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연습경기를 펼친다. 다수의 팀이 일본을 전훈지로 삼은 이유는 연습경기 상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선수들의 수준도 국내와 비슷해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훈련을 견해 매년 미국을 찾는 SK는 올해 전훈 일정을 다른 팀들보다 늦췄다. 팀의 에이스 김선형이 남자농구대표팀에서 돌아온 뒤 전훈을 떠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선형은 대표팀과 함께 9일부터 이란

에서 벌어지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 챌린지에 출전한다. SK는 김선형이 대표팀에서 복귀하는 18일부터 미국 LA 인근 도시 어바인에서 10월초까지 훈련할 계획이다.

전자랜드와 KCC는 중국으로 간다. 전자랜드는 중국 라오닝성의 몇 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출국해 추석 연휴에도 중국에서 훈련한다. KCC는 자매결연을 한 수도강철과의 연습경기를 위해 10월 5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www.198282.net

2016년 신제품

외로운 밤~♥ 외로운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나만의 명품 여자친구

19 **신음소리에서 고성소리 까지!**

국내선 불만족이므로 제작 절대 무용성이라, 속강이 부도롭고, 반박이 무수, 휴대하기 간편하게 사용되기 편리합니다.

성인용품점이나 시중에 없는 국산품 입니다. made in korea

★국내최고의제품절대 타지않습니다★

실물보다 더 섹시한 공기인형 "명기" "명기"와 놀다보면 날 새는줄 모릅니다.

제품문의 1588-4101 / 010-3895-4114

37년의 대가 한의사가 개발한

황금봉

男子에겐 특히 꼭 필요하다고요!

▶고개숙인 남자를 일으키는 용천형 외 기적의 30곳
▶일정한 진동으로 운동의 근육세포인 경혈을 자극하여 기의 흐름을 풀어 줌.
▶최소6곳의 현자리를 매일 진동 자극하면 100세시대 장수의 비결.

사용하기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반영구적이며 휴대가 간편합니다.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정수하고 싶으신 분
-연세드서서 뼈마디가 우시는 분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인해 어깨가 결리는 분
-살이찌서 비만이신 분, 말로로 고민하시는 분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증정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은 한의사가 저술한 **경혈 마사지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매문의: (주)에어제로

1588-4101, 010-3895-4114, 010-7102-7070

www.198282.net

남자의 자격 대물

신제품 출시
수술없이 크고 당당하게!

※작고 빨라서 자신 없다고 고민중인 남성!
※강직도가 약해서 중간에 시들어 힘이 약해지는 남성!

대물을 착용하는 순간, 본인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누구나 사이즈에 불편함이 없도록 5단계 조절이 가능하며 날개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大, 中, 小 3가지 종류입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상담전화 : 1588-4101 / 010-7102-7070

19 천명의 여자를 안아본 **체형소설!**
www.198282.net

19세미만 구독불가

30~40대 여성의 **대반란**

불륜천국

1. 여자중의 여자인 명기들
2. 천명 여자중 하나인 용녀
3. 쉽게 허락한 여자의 본능

2016년 최강권 총 648 페이지 3권 구매시 카톡명인(13,000원)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불륜천국을 읽어보지 않고는 여자의 본능을 논하지말라! 깊어지가는 밤 날 밤 새는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체형소설

여자의 색 19 **소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의 필독서!**
人生은 한방분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은 이것이다!

문의 (주)에어제로 출판사

1588-4101, 010-8968-5877, 010-3895-4114